

# 순천만가든마켓 내일 정식 개장

### 국내 최초 정원 관련 윈스톱 판매장 단장 “대한민국 정원산업 선도적 역할 할 것”



농협회사법인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대표이사 채승연)는 국내 최초로 정원관련 윈스톱 판매장으로 단장하여 오는 18일 정식 개장한다.

순천만가든마켓에 따르면 정원수공판장과 야외판매장, 실내판매장, 쉼터 등으로 구성되어 대한민국 정원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지역소상공인과 생산단체 등 협력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차례 수렴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소상공인 상생협력존을 구성 운영하게 된다.

정원수 공판장은 정원수 실시간 경매를 통

해 지역 정원수를 전국 홍보하여 생산자의 판로를 돕게 되며, 야외판매장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 정원관련 단체 등 9개 단체가 참여하여 「꽃과 나무시장」과 함께 다양한 식물류를 판매하게 된다.

실내판매장은 대부분 지역소상공인 업체 23개소가 가든마켓에 위탁하여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가든마켓내에는 카페테리아를 운영하게 되며, 실내외에는 가족단위 피크닉존을 비롯하여 다양한 쉼터가 구성되어 시민들의 휴식 장소로 제공하게 된다.

순천만가든마켓은 전국 최대의 정원수 생산지인 순천시의 장점을 살려, 생산에서 유통까

지 이어지는 윈스톱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순천시가 남중권의 새로운 정원산업 거점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물 판매장에서는 관목류, 교목류, 분재류, 잔디, 야생화, 식물 씨앗 등 국내외 다양한 식물들을 선보이게 된다. 자재 매장에서는 정원 시설품과 정원가구, 정원소품 등을 비롯하여 재배 도양, 비료, 영양제 등 정원자재와 포장재, 목재, 석재, 식물 용기 등을 판매하게 된다. 이외에도 관수용품, 장화, 장갑, 가위, 분무기, 송풍기 등의 용품도 판매할 계획이다.

순천만가든마켓(주)의 정원수 공판장에는 온·오프라인 경매로서 정원수 및 묘목을 유통하고 정원수 생산 기술을 지원하여 유통할 뿐 아니라 묘목 생산기술 및 공급체계 구축과 정원지원센터를 통해 개발된 품질인증 기분을 적용하여 정원수 표준화와 정원수 품질인증을 담당하는 정원수 유통 종합정보센터로 운영된다.

그 외 정원식물 연구 전시장과 실습교육장, 정원관련 서점 등으로 정원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카페테리아, 업사이클링 정원과 피크닉존을 통해 복합 정원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채승연 대표이사는 “순천만가든마켓은 정원의 도시 순천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며, 국내 유일 윈스톱 종합가든센터로서 지역정원관련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상생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8일 오프닝에는 시민과 생산농가를 비롯한 지역소상공인들이 참석하여, 기념수와 기념품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흥미를 더 할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김승호 기자



## 고흥군,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실시

### 과역면 이장·부녀회장 대상 폭예방 인식 확산 맞춤형 교육 실시

고흥군은 지난 15일 과역면 이장·부녀회장을 대상으로 ‘군민속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생활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만나는 이장·부녀회장에 폭력예방 인식 확산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왜곡된 성 인식 개선 및 가정폭력의 발생원인과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숙지하여 지역 안전 파수꾼으로서 역할 수행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번 교육은 전라남도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전문가를 파견하여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라는 주제로 일선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예방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그동안 고흥군에서는 폭력 피해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임시숙소 지원 △아동·여성지역연대 운영 △4대 폭력예방 교육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해 힘써왔다.

한편, 고흥군에서는 3월 과역면을 시작으로 12월까지 16개 읍면 이장·부녀회장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안전한 고흥 만들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보성군, 4년 연속 균형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 겸백 하덕마을에 20억 원 투입

보성군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겸백 하덕마을이 선정돼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보성군은 2025년까지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 생활여건 개선에 나선다. 보성군은 지난해 9월부터 주민들과 함께 필요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공모사업 유치에 적극 뛰어들었다.

겸백면 하덕마을은 전체 건물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가로 이번 사업을 통해 담장정비, 지붕개량 및 빈집정비, 안길 정비 등 하드웨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주민 주도형 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주민 역량 강화도 실시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었던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이 사업에 포함돼 있어 도시 미관과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신규 진입자를 위한 공간 등으로 재탄생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2015년부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뛰어 들어 2019년부터 4년 연속으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 매년 2개 지구가 공모에 선정되는 등 총 7개 지구에 14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현재 벌교 봉림마을(35억 원)과 벌교마동 마을(31억 원)은 사업을 완료했으며, △2019년 선정된 벌교 양동마을과 조성 매곡마을, △2020년 벌교 회정, 조치마을은 공사 중이며, △2021년 대상지구인 보성 노산마을, 벌교 전동 마을은 농림부와의 기본계획 협의 후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6월 착공 예정이다.

보성=김덕순 기자

## 여수시, 전남도 사회혁신 공모사업 ‘도내 최다’ 선정

### 5개 사업...도비 2천 8백여만 원 확보

여수시는 전남도가 주관한 ‘2022년 사회혁신 공모사업’에서 도내 최다인 5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전라남도 사회혁신 사업’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지자체 중심이 아닌 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해결하는 지역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수시는 업사이클링 및 폐자원 재사용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과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발굴해왔다.

올해 전라남도는 각 시군에서 신청한 32개 사업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4개 시군, 25개 사업을 선정했다.

여수시는 이번 공모에 총 6건을 응모해

▲자원 순환하GO! 환경 보호하GO!(소라종합사회복지관) ▲이웃과 마을환경을 잇는 실마리(문수종합사회복지관) ▲주민과 같이 가치를 만드는 우리동네 프로젝트(월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과 발맞춰 걷는 국동 행복 하이파이브(국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계절 행동하는 복지1004마을 중앙동(중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5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선정된 공모 사업비 중 24,840천원을 도비로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혁신 정책을 시행해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오상호 기자



##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 누가 받나요?



방임, 유기, 학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